가룟유다 자살과 베드로통곡의 비교

(마27:1~10)

3. ○그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5.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6.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7.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8.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9.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삼십을 가지고
10.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가룟유다 자살과 베드로통곡의 비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한 것을 뒤이어서 심하게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통곡과 가룟 유다의 자살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 번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잘못, 결국 이 사람의 멸망을 확증시킨 잘못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은 삼십 세겔을 받고 팔아먹은 것, 이것이 과연 가룟 유다를 멸망으로 확정 짓게 한, 가룟 유다의 운명을 멸망으로 확정 짓게 한 치명적인 사건일까요?

그러한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팔아버린 잘못에 비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 받는 동안에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것은 얼마나 더 멸망 받지 않을 수 있을 여지를 담고 있는 더 나은 행동입니까?
차이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은 삼십 세겔에 예수님을 판 것을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라고 보는 거는 이건 참 오해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번민하고 고민하는 심각성을 고려해보면 은 삼십 세겔은 가룟 유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판 목적이.
말씀 드렸듯이, 필요 없어진 물건들을 엿 바꿔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설계한 자기의 드림, 자기의 비전, 자기의 소원에 대해서 쓸모없게 됐다는 것을 판단한 결과지, 은 삼십이 탐이 나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른 열 두 제자보다도 훨씬 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민족의 독립을 강렬하게 소원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먼저 배반감을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강하게 느낀 것이고,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이, 민족의 독립과 선민의 이방인에 대해 우월한 위치 찾기에 대한 어떤 열망이 가룟 유다가 더 강했고, 그리고 이러한 꿈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전혀 쓸모없게 되었다는 사실 판단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빨리 명확하게 가룟 유다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민족의 독립을 가장 강렬하게 꿈꾸었던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민족 사랑의 입장, 애국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무력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눈에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분으로 비쳤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판 행위 자체에서 가룟 유다의 멸망이 확정적으로, 치명적으로 결정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다, 가룟 유다와 다른 운명을 걸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지요.
뭐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멸망을 결정짓는 행위는 내가 나 자신을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멸망을 확정짓는 악이 자행됩니다.
단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기의 죄를 뉘우칩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굳이 아예 가룟 유다를 철저하게 악한 놈으로만 몰고 갈 필요가 없어요.
이 감정, 내가 죄를 범하였다는 이 감정은 베드로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통곡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였다고 보는 이 가룟 유다의 심리적인 상태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 멋진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열혈당원으로서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민족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볼 때, 민족에 대해 등을 돌리고 민족에 대해 배반하는 자를 제일 싫어한 자들이 열혈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세리 같은 자들을 제일 미워하는 자들이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열혈당원 사람들의 신념체계였다는 거예요.
배반을 제일 미워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쪽에 속한 자로 봤던 것입니다.
나라의 식민지 상태를 등 돌리고 외면한 자로서 예수님을 파악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김 구 선생님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김 좌진 장군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면에서 볼 때, 비록 나라의 독립 문제를 외면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울분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러나 그 울분이 삭고 재판 받는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저분이 저렇게까지 정죄를 당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calm down 한 상태에서, 냉정을 되찾은 상태에서 확인하면서 자기가 잘못 했다는 것을 압니다.
배반을 가장 싫어한 자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조국을 배반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고, 나중에 그 격노한 상태가 가라앉은 뒤에 자기가 죄 없는 분을 팔았다는 것을 죄를 뉘우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기의 뉘우침을 따라 은 삼십을 물려주고, 예수님을 도로 회복했으면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살해 버리고 맙니다.

베드로와 비교해 보면 명확해 집니다.
베드로는 유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달랐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귀중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하겠다고 확언, 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통곡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며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를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확언 장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자는 나를 배반하는 자요, 나를 저주할 자요, 나를 부인할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당신의 곁에 끝까지 두시면서 사랑하십니다.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를 발견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예수님 속에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에서 나타난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자기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치졸하고 약하고 악한 자기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끝까지 곁에 두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죄 없는 예수님을 팔고 있는 그 행위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져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정당해 보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를 바라보고 계시고 삼년 동안 이 사람이 나를 팔 거라는 걸 알면서 데리고 다니시고 사랑하셨던, 다른 열 한 제자와 똑같이 대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살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죽이기 이전에 이미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죽인 겁니다,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모든 자살은 마음속에서 내 의식의 영역, 의식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을 죽이고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 의식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을 내몰고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온갖 악행을 다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생명을 살려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 두고 계시는 생명 하나님에게서 나를 발견하면 결코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어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어떤 악행을 자행했더라도.

여러 'keyboard warrior'라는 말이 있어요, 'keyboard warrior'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컴퓨터의 자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판을 두드리면서 싸움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keyboard warrior'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악플러들을 말해요 악플러들. 특정인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keyboard를 통해서 인터넷상에 막 유포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괴로워하고 그들이 치명적인 심리적 타격을 입고 상처를 입는 것을 보고 즐깁니다.
'keyboard warrior'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넷 싸움꾼이지요, 참으로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keyboard warrior'들이 올리는 악플 때문에, 인터넷상의 악플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괴로워하고 또 많은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빠지다가 자살까지 합니다.

그런데 'keyboard warrior'가 악하지만 자살이 용서 받을 수 없는 악행인 것은, 그들의 자살 행위 이전에 반드시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피조물로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죽이고 나서야 자살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살도 어떤 강한 악플러의 악플 때문에 동기 유발된 자살도 정당화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살은 반드시 자기를 지으신, 자기를 용납하고 계시고 자기를 수용하고 계시고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죽이고서야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는 아내에게 아니면 장모님에게, - 마가복음에 보면 장모님을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습니까? -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마음으로 배반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부인까지 했다고 얘기하면, 그 아내가 신숙주의 아내와 같았다면 이랬을 거 같아요.
'나가 죽어라 예수님이 당신에게 3년 동안 사랑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차라리 죽지 않고 몰매 맞고 초죽음이 돼서 놓임을 받더라도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신숙주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사육신과 다른 길을 걷고 단종 임금에 대한 충절을 저버리고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에 오른 세조 편에 섰던 그 신숙주를 향해서 아내가 침을 뱉고 자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해지는 얘기에…

베드로도 그렇게 아내에게 취급당해 마땅한 행동을 한 거에요.
비겁하기 짝이 없고 치사하기 짝이 없고 그가 호언장담한 걸 생각하면 더 치사하고 더 악한 거지요, 게다가 큰소리를 친 걸 생각하면, 말과 다른 행동은 보면.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자살하지 않고 통곡합니다.
왜 통곡합니까? 아내까지 장모님까지도 사람취급 안 할 수밖에 없는, 아내가 정당하게 자기를 무시할 수 있고, 장모님이 정당하게 자기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받아들여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주할 것이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같이 괴로운 장면, 그런 괴로운 순간에까지 끝까지 끌고 다니시면서 사랑했던 예수님에게서 받아들여진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이래 최고의 악플러가 누구 같습니까?
정말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악플과 같은 악플을 달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악플의 내용이 뭡니까?
인류 역사이래 만들어진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의 저주 그것이 나에게 합당한 자라고 악플을 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그거를 악플이라고 얘기하자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사실이지만 누가 나에게 그 정도 강한 악플을 달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저주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악플을 누가 나에게 달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악한 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주 받고 죽은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렇게 저주 받아야 될 나 대신에 주님이 죽은 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강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그 악한 저주가 합당한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 우울하십니까?
자녀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남편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까?
또 내가 한 행동을 내가 볼 때에 가룟 유다처럼 너무나 내가 밉고 내가 죽이고 싶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런 나를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에게서 하늘아버지에게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는 나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속에서 나를 보면서 힘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의 죄를 보면 확 죽어버리고 싶지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내가 한 행동을 보면, 남이 모르게 진 죄를 보면, 아내 모르게 남편 모르게 자식 모르게 진 죄를 생각하면, 이건 지금 당장 목 매달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다~ 예견하시고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받아들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멋진 남자입니다, 세상적으로만 보면.
용기 있는 남자입니다, 민족을 사랑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 속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나타난 걸 보고 자살을 할 줄 아는, 명예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게 악입니다.

모든 악행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내가 발견한 나보다 더 악한 나로 보시면서도 독생자를 죽이면서 나를 수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자들이 신앙인이고 선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자들이 많지 않고, 이제는 그저 아내까지도 남편까지도 자식들까지도 나를 무시하고, 직장에 나가서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잘난 구석도 없고 내 세울 구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족함과 악행을 다 아시고 받아들여주고 계시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무릎에 그 사실로부터 힘이 주어지게 하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세상의 무게를 버티며 기어코 승리해 낼 수 있는 하늘의 아들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